



연/합/감/리/교/회/한/인/교/회/총/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hurches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일자: 2022년 3월 8일

수신: 한인 연합감리교회

제목: '교단 총회 연기에 대한 한국총 회장 목회 서신'

고문위원:  
이성형목사 (서부)  
류재덕목사 (서부)  
김광태목사 (중북부)  
이성철목사 (중남부)  
김정호목사 (동북부)

회장:  
이철구목사 (동남부)

부회장:  
림학춘목사 (서부)  
김태준목사 (중북부)  
손태원목사 (중남부)  
고한승목사 (동북부)

평신도연합회 회장:  
안성주장로 (서부)

부회장:  
최정관장로 (서부)  
윤용중장로 (중북부)  
황철현장로 (중남부)  
최관호장로 (동북부)  
유영래장로 (동남부)

총무:  
김일영목사 (동북부)

협동총무:  
신병옥목사 (서부)

서기:  
배연택목사 (동남부)

회계:  
박진원목사 (동남부)  
유형재목사 (동남부)

감사:  
양훈 장로 (동북부)

자문위원:  
류계환 목사  
(한인총회선교총무)

"나는 감리교회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회가 생명의 능력을 잃고 종교조직의 형태만 지닌 채 죽어버린 종파로 남는 것이다. 감리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교리, 정신, 혼련을 굳게 붙잡지 않는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존 웨슬리, 1786

한인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고난을 다시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지난 3월 3일, 교단총회가 2024년으로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고 해외 대의원들의 비자 발급이 지체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는 총회를 기다려온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새 전통주의 교단의 출발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Global Methodist Church가 공식 출범(5월 1일)을 선언함으로써 전통적 복음주의 입장에서 있는 감리교회들이 새 교단에 합류할 수 있는 울타리가 마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총회연기는, 이미 전국적으로 200여 개의 전통주의를 표방하는 연합감리교회가 교단을 탈퇴한 상황에서, 더 많은 연회와 개체 교회들이 합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한인교회들 중에서도 전통주의 새감리교단인 Global Methodist Church와 신앙적/신학적으로 같은 입장에서 있는 한인교회들도 그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한인교회총회는 <인간의 성> 문제로 발생한 교단의 혼돈과 격랑 속에서 전국의 한인교회들이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권위와 전통을 지키며, 한인교회의 신앙적/신학적 전통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장정(BOOK OF DISCIPLINE)의 규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교단 지도자들이 지역의 개체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안위는 뒷전으로 한 채, 개인적인 이권과 그것을 보장할 것으로 믿는 교권을 지키기 위해 '당근과 채찍'으로 전통주의 입장에서 있는 교회와 목회자를 회유, 협박하기도 하고, 파송권을 가지고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들이 내미는 당근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르를 위하여 곡고성 비뚤과 라앗셋을 건축하게 하니라"(출 1:8,11)는 말씀을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당근과 감독들을 통해 교단과 교회에 메여놓은 이 짐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인지 분별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파송권으로 인한 채찍에 대해서는 주지하다시피 지난 해 몇 연회의 감독들이 규모가 큰 한인교회를 골라 교회와 목회자가 동의하거나 요청하지 않은 처벌적인 '재파송불가'조치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제시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다? 개체교회를 위한 선교적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성 정체성 이슈에 대한 성서적 원칙을 지키는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향해, 동성애자 목사 안수 및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감독의 입장과 다르다는 것이 파송변경의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렇듯 장정을 지키지 않는 연합감리교회 감독들이 전통주의 장정을 교회의 법으로 지키고 있는 한인교회의 목회자와 교회를 장정이 규정한 감독의 파송권을 이유로 좌지우지 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연합감리교회 교단의 현실입니다. 이에 한인교회총회는 신앙의 최고가치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성서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의 연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와 전국평신도연합회와 함께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한인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의 연합감리교회와 연회에 남아서 싸워야 할 가능성과 새 교단인 Global Methodist Church 합류에 뜻을 같이 하는 한인교회들이 취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2년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달라스에서 열릴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 연차 총회'에 목회자들과 평신도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이번 연차 총회는 각 개체 교회의 평신도 대표, 임원회장, 연회 대표 등 개체 교회를 대표하는 평신도 분들과 함께, 한인교회의 새로운 미래와 연합감리교단이 처한 난국의 극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논의 하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교단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호소합니다. 이 시간과 여정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이걸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며,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전 3:11)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  
회장 이철구 목사 드림